

베네수 부통령, 임시대통령 취임...“피랍에 깊은 고통”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에 선서...마두로에 여전히 “대통령”

베네수엘라 정부, 美 공격 지지자 ‘비상선포문’ 단속 개시

텔시 로드리게스(56)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63) 대통령 부재에 따른 통치권 수행을 위해 5일(현지시간)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날 카라카스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회의 사당에서 임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저는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마약 테러 공모 등 혐의 피고인’으로 미국 뉴욕 법정에 선 마두로를 ‘대통령’이라고 칭하면서 “저는 미국에 인질로 잡힌 두 영웅,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피랍에 깊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부통령으로서 핵심 부처인 석유장관을 겸임하면서 경제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로드리게스를 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젊고 용감하며

노련한, 순교자의 딸이자 혁명가로서 수천 번의 전투를 겪어낸 인물”이라고 소개한 적 있다. 로드리게스 부친은 베네수엘라 좌익 게릴라 운동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호르헤 안토니오 로드리게스(1942~1976)다.

미군 작전 수행일인 지난 3일 저항 의지를 피력했던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이튿날인 4일엔 매우 완곡한 어조로 “우리나라가 존중과 국제 공조의 환경 속에서 외부 위협 없이 살기를 갈망한다”면서 미국과의 협조 의지를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으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에 대한 법적 효력을 확인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천오십인 호르헤 로드리게스(60) 국회의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6~2027년 임법부 수장으로 재선 출했다.

2031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의원들의 취임 선서식이 함께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국회의원인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35)는 로드리게스에 대해 “주어진 매우 어려운 임무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다”라며 눈물을 참으

며 말했으며, “국가 원수의 납치를 정상화한다면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은 또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아 가는 것을 목표로 수행된 미군 공격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이는 이들을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선포문을 관보에 게시했다.

해당 문서의 ‘존재’는 지난 3일 로드리게스 당시 부통령에 의해 처음 공개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조치 배경으로 “미국의 군사 행동에 따른 것”이라고 적시하면서 “미국 정부가 우리 영토를 대상으로 전개한 행위는, 침략을 격퇴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화국의 신성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방어 조치의 시급한 채택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군과 민병대 총동원령, 공공 서비스 인프라 및 석유산업 군사화, 국경 지대 병력 증강 및 순찰 강화 등이 명시됐다.

연합뉴스



베네수 유조선, 봉쇄 조치에도 잇따라 출항 베네수엘라 유조선들이 미국 정부의 수출 봉쇄 조치를 무릅쓰고 최근 잇따라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적을 표시하지 않거나 안전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유조선 10여척이 올해 초 베네수엘라를 출항해 공해를 향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선박 중 절반은 평시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중국으로 운반하는 초대형 유조선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박의 목적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트럼프 “관세 870조원 징수 또는 징수 예정”

대법 판결 앞 연일 ‘여론전’
“美, 관세 덕에 훨씬 더 강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제한법(IEEPA)에 입각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 관세’(국가별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5일(현지시간)에도 관세로 인한 이익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관세로 6000억 달러(약 870조원)를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가짜뉴스 언론은 이를 다루기를 거부한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이 이러한 막대한 관세 수익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경멸하기 때문이고, 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세 덕분에 우리가

라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안보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게시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관세로 인한 대규모 수익을 강조하며 거듭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를 심리 중이며, 이르면 이달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대선소방설비산업

(주)대선이엔지

(자)대선산업개발

(주)일등소방

(주)유덕전기소방공사

(주)엔에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8

Tel : 062-381-7119